

광산경제백신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코로나19 경제위기 함께 극복하자” 민·관·산·학 대표 40여명 참여 ‘경제백신펀딩’ ‘차한잔의 나눔 릴레이’ 기부 캠페인 등 6개 사업 호응

광주 광산구 주도로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산·학을 참여시켜 발족한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40여명이 함께 뜻을 모아 발족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경제백신시리즈를 발표했다.

첫 사업으로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10억 모으기 ‘경제백신펀딩’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IMF 국난극복 국민운동의 지혜를 거울삼아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경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등분담과 협동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 이날 현재까지 40개 기업과 개인이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으로 펀딩에 참여했다.

펀딩 첫 참여자인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4개월분 급여 30%를 기부했으며, 광산구의회도 지난 8일 의결들이 실시한 모은 400여만원을 내고 ‘경제백신펀딩’에 동참했다.

‘광산경제백신회의’ 두 번째 사업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 한잔의 나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5000원과 1만원 등 소액으로 일반 시민도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번째 사업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체국 쇼핑물 ‘광산구 브랜드관’도 인기다.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지원으로 온라인 쇼핑물을 준비하던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는 지난달 13일부터 우체국 쇼핑물에 ‘광산구 브랜드관’을 열려 관내 소상공인의 무료 입점을 돕고 있다.

4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이곳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20% 할인특가전을 비롯한 배달비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4번째 광산경제백신 사업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산형 시민수당’이다.

시민수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인 시민 600명에게 지역방역, 공공봉사,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5번째 사업으로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남부대학교에서 ‘광산 친환경 로컬마켓’ 사업을 열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광산경제백신회의 참가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다짐하고 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40여명이 함께 뜻을 모아 발족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경제백신시리즈를 발표했다.

개혁 연기와 구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의 농축산물을 판매해 생산자를 살리고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로컬 마켓 사업은 승차판매(drive-thru) 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6번째 사업으로는 ‘경제특강과 경제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한 신흥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과 함께 위기대응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것 등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믿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정신을 담아 발족했다”면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민생경제 지원 2차 추경안 광산구, 구의회 제출 소상공인 30만원씩 지급 등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반회계 777억원, 특별회계 39억원 규모로 총 816억원이 증액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8243억원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3월 1차 긴급추경 740억원에 이은 광산구 2차 추경을 살펴보면, 연 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금’ 38억원, ‘중소기업 특별보증기금출연금’ 5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억원, 기초연금 26억원, 신촌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10억원 등 긴급 현안사업도 일부 반영했다.

광산구는 추경안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주요 재원 확보에 방안도 제시했다.

광산구는 사업 취소 등 예산절감액 18억원, 광산 CC 부가세 승소 환급금 22억원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중소기업특별보증기금출연금 등을 총당한다 설명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5월을 경제회복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광산구의 추경안은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생활속 거리두기’ 범시민 참여 캠페인 광주 5개구 미용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범시민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0년후 광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착수

시, 용역 발주 3개 컨소시엄 선정

광주시는 “10년 후 광주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 지난 2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에서 사전견적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3개 컨소시엄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4월 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삼안, ㈜신명건설기술공사, ㈜뽕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501.18km²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km²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뒤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3기 참가자 모집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 광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주차·흡연 등 아파트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주민 스스로 예방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광산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자격을 부여한다.

또 교육 이수자가 거주 아파트에서 이웃갈등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협약안’ 마련 주민회의를 열면 회의 진행 조력자 지원한다.

교육 기획과 진행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박수선 ‘갈등해결 평화센터’ 소장이 맡는다. 양성교육은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주민회의 지원으로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 속갈등을 스스로 조정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아파트공동체팀(960-8143)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친환경 자동차부품 신규 기술과제 도전하세요”

광주시, 4대 전략기술분야 공모

광주시는 “자동차 기업의 친환경 부품생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신규기술과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2020년도 신규기술과제 수행기업과 주관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과제는 ▲전기차 파워트레인기술 ▲경량화 및 부품 생산기술 ▲고효율 전동부품 및 광응용 전자기술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자동차기술 등 친환경부품 4대 전략기술 개발 분야 17개 과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6월 중 협약 체결 및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국비기준 총 12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과제 발굴에 나서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